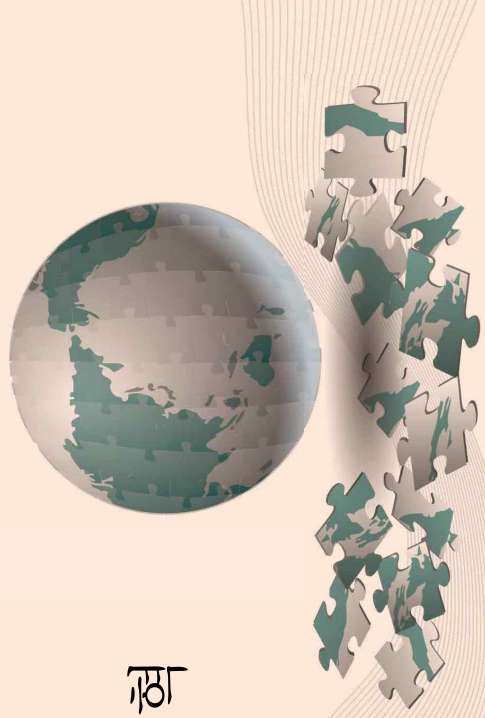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

6 이상규 (고신대학교 교수)



이 글의 목적은 본질에 있지 않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재해석해 본다는 의미도 없겠지만, 한국교회 상황을 종교개혁의 빛으로 조명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16세기 상황을 오늘날의 한국교회 상황에 평면적으로 대비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개혁(the Reformation)'의 동기와 정신이 교회 개혁과 교회 건설에 있었다는 점에서 상호 해 볼 만하지 않을까.

1.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일반적으로 4세기부터 교회의 번갈 혹은 부패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후의 기독교를 본 스탠틴적 기독교(Constaninian Christianity)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재세례파는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교회의 번갈 및 국가권력과의 아합의 분기점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의 개혁 이념은 '복귀(restitutio)론,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역사신학자 윌리엄 킹닝햄(William Cunningham)은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2세기에 이미 성경적 교회권이 번갈되는 조짐이 보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고위 성직계급의 출현, 둘째는 은혜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셋째는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과장된 개념의 대두였다. 교회역사

서 '교회의 부패'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 곧 성직자들의 부패였다.

성직자들의 부패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1300년 2월 22일 교황 보나페이스 8세(Boniface VIII, 1294-1303)는 세로운 세기를 기념하며 칙령을 내려 회년을 선포하고 "이 회년 동안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준다."고 공포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교황 관저에는 48개의 루비, 72개의 사파이어, 45개의 에메랄드, 66개의 커다란 진주가 박혀 있었다고 한다.¹⁾ 그리고 돈만 드는 천재로 알려진 요한 22세(1316-1334)는 각종 징세제도를 고안해 내는가 하면 성직과 면죄부를 판매했다. 종교개혁 직전인 알렉산더 6세(1492-1503) 때는 그 수준이 극에 달했다. 그는 교회의 관행과 규율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극도의 타락과 방종의 삶을 살았는데,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몇 사람의 정부와 3남 1녀가 있었고 교황이 된 후에는 7명의 자녀를 더 얻었다고 한다. 1447-1517년 어간의 교황 중 절반이 자녀를 두었으며, 15세기 말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 매년 약 1,500명의 사생아가 출생했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성씨(姓氏 가문명) 중 MacTaggart는 '사제의 아들'(son of the priest)을, MacNabb는 '수도원장의 아들'(son of the abbot)을 뜻한다고 한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소위 '여성의 집'(Frauenhausen)이라는 환락가가 있었는데, 주 고개는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였다. 또 1414년 11월 보덴 호숫가에 있는 작은 도시 콘스탄츠에서 교회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종교적 손님을 상대할 700여 명의 매춘부들이 유럽 각지에서 몰려왔다고 한다.²⁾ 이러한 상황에서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부름"(Vita clerici est evangelium laice)이라는 유명한

1) 루터는 Reformation이라는 독언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단어는 학문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티칸 Reformatio를 독일어명이 되고 불렀다.

2) 브투스 설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277.

3) 한스 C. 후트, 『교황들』(동화출판사, 2009), 113.

4) T. S. Thiemege, 『The Reformation Era』, (Concordia, 1968), 11-12.

한 경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적 상태를 암시한다. 종교개혁 초기의 교황이었던 아드리아누스 6세(Adrianus VI, 1522-1523)는 신성로마제국 뒤르베르크 쿠회에 있는 교황 사절 프란체스코 치에레기에 추기경에게 훈령을 보내면서 "루터 이단으로 교회에 받는 어려움의 책임은 성직자들, 특히 교황과 그 성직자들에게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 훈령에서 "교회 안에는 기증할 만한 폐습이 많으며, 이러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한 성직자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세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직 교육의 부재 그리고 무분별한 성직자의 양산에 있었다. 이것이 중세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적 요인이었다. 티르나켈(T. Thiemege)에 의하면 16세기 초 유럽 인구의 85%가 농민, 노동자였고, 10%가 통치 그룹 혹은 귀족이었으며, 성직자는 5%에 달했다고 한다.⁴⁾ 1500년 당시 세계 인구를 약 5억으로 추산하는데, 유럽의 인구를 1억으로 본다면 성직자 수는 무려 5백만 명이 된다. 독일의 경우 쾰른에만 약 5,000명의 사제와 수도사들이 있었고, 수도사들을 포함한 독일 전체 성직자의 수는 무려 1백50만 명에 달했다. 인구 30명 당 1명의 성직자가 있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 성직자 과다 배출은 성직자의 지적, 영적, 도덕적 수준을 저하시켰고, 상호 경쟁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권위와 신뢰도 상실하게 만들었다. 성직자 수의 급증으로 그 혜택이 줄어들면서 성직자들 간의 경제적 불균형이 불가피해졌다. 성직자들 간에 상호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한쪽에서는 어머니마 한 부와 사치를 누리며 방종을 일삼는가 하면 또 다른 쪽은 쿠도의 빈곤과 가난에 시달렸다. 오늘날 개신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도 성직

교육의 불균형과 과도한 성직자의 배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성직자 수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 되는데, 남한 인구를 4천5백만으로 볼 때 인구 450명 당 1명의 성직자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 성직자의 10% 이상이 임지가 없는 '비활동 인력'으로, 이들은 스 필진도 예상 못한 제3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 성직자의 과도한 배출은 분별없는 개척교회의 난립과 교회 분 열, 그리고 성직자 상호 간의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었다. 성직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고, 교회 개척은 신국 건설이라는 거룩한 소명보다는 생계를 위한 종교활동, 생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 교회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

16세기의 개혁을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개혁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들의 목표는 교회의 쇄신에 있었다. 그럼에도 '종교개혁'이라 칭하게 된 것은 The Reformation을 '종교개혁'(宗教改革)으로 번역한 일본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교회사를 가르쳤던 왕길치(C. Engel) 신교사는 'The Reformation을 '교회 개정사'(教會更正史)로 번역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리적인 개혁운동(Reform)이 아니라 영적부흥(쇄신)운동(R revival)이었다.⁵⁾ 영적 각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교리적인 개혁은 이데올로기화 되기 쉽고, 교리적 기초를 상실한 영적 각성은 신비주의 혹은 주관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개혁은 교리적 개혁과 영적 부흥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6세기 개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 실교: 교회개혁의 기초

개혁자들의 중요 관심사는 말씀의 회복이었고, 이것이 개혁의 수단이 되었다. 개혁자들은 교회 갱신의 핵심을 말씀의 권위 회복에 두었고⁶⁾ 실교를 통해 이

를 실현하고자 했다. 칭교도인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도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하여』(De Regno Christi)에서 "영국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회복함으로써 개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교를 교회개혁의 수단으로 간주했다.⁷⁾ 개혁자들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였다. 따라서 '성경 중심'(sola scriptura)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경의 바른 실교를 통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므로 '말씀의 신실된 진리를 참된 교회의 표지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캠브리지대학의 피터 브룩스(Peter Newman Brooks)는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고 했다.

칼빈은 신학자이기에 앞서 설교자였다. 성경의 권위는 그에게 중요문제로였고, 성경 외의 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이 있어서 칼빈은 루터보다 더 철저했다. 로마카톨릭이 성전(聖廟)이라 부르는 전통(tradition)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을 지닌다."고 보았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은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전통을 폐기했다. 그리하여 루터교회에는 여전히 로마교적 잔재가 남아 있으나 개혁교회는 로마교적 잔재를 말끔히 청산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혁교회는 루터교회보다 더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었고, 이런 점에서 베인본은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했다."고 하였다.⁸⁾ 개혁자들은 성경을 강조하고 진실한 말씀의 증거를 참된 교회의 중요 한 표식으로 삼았는데,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의 표식(signum)으로 말씀과 생애를 들었다. 그러나 루터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만을 강조한다면, 칼빈은 말씀의 바른 선포뿐 아니라 청중도 올바르게 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청중은 성경강해의 실교를 경청하고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스도 청중은 실교의 바른 선포를 위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2) 하나님 중심사상
 종교개혁은 성경 본연의 기독교로의 회복운동으로, 그 근거와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과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했으나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인정했다. 이것이 '성경 중심' 사상이다. 또 개혁주의자들은 교황이 질 대적일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 곧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사죄와 은혜의 수여자라는 당시 교회의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거나 영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성경의 유일한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공로의 결과라는 변질된 구원관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무력화시켰다. 특히 고위 성직계급(교황)의 출현은 교회를 급속도로 인간 중심의 계급공체로 변질시켰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서는 인간의 권위가 커지고 교회 구조의 계급화가 심화되고 있다. 종교적 권위주의가 한 국교회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직분이 계급화되면서 교회하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2세기를 지나며 2직분론이 급격히 힘을 잃고 3직분론이 대두되면서 교회직 분의 계급화가 나타났다. 교회 구조는 권력 구조로 재편되었고, 성직은 계급화 되었다. 이렇게 교회와 교회 구조는 세속화 되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과 아합했고, 둘째는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노회, 총회가 지나치

게 권력화 되어, 세속 정치계를 방불할 정도로 경쟁적 인 이권 다툼의 장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노회장, 총회 장이라 하여 '장'이라는 교회 직분의 '수위성'(首位性)을 말하지만, 영어로는 그냥 중재하는 사임(moderator)에 불과함을 기억하자.

3) 가난해질 수 있는 교회, 부와 물량주의
 중세교회의 근본적 문제점 두 가지는 권력에 대한 야망 과 부에 대한 탐욕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으나, 수도원이 부를 축적하면서 부패하였고 다시 수도원 체신운동이 일어났다. 부는 영성을 파괴하였고, 나그네 공동체를 안 주공체로 전락시켰다. 루이스 스피즈에 의하면 16세기 유럽의 토지 3분의 1은 교회 소유이거나 교회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한다. 교회는 많은 토지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각종 현금계도도 재산을 축적했다. 돈과 권 력 때문에 8살, 11살짜리 아이가 추기경이 되기도 했 고, 한사람이 4개 도시의 대주교직을 겸하기도 했다. '점적제도와 '부재적임제'(absenteeism)가 정당시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양심'이라 불린 성 베르나르 드(St. Bernard)는 교회나 성직자가 부를 통제할 신앙적 자재력이 없으면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는 그러한 영적 통제력이 없었 니 "교회는 가난해야 한다."고 했다. 루터는 부(소유)는 분배되어야 하고 필질된 이웃을 위해 분배되지 않는 재 물은 '소유의 본질'(nature of possession)을 상실한 것 이라고 보았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되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종교 귀족들이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성직자들은 정도 이상의 부를 향유 하고 있다.

5) Jeremy C. Jackson, *No other Foundation, the Church through Twenty Centuries*, Cornerstone Books, 1980), 제1장 참고.

6) B. C. Milner,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London: E. J. Brill, 1970), 133; Paul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14.

7) 오덕고, 『칭교도와 교회개혁』, 204. 코튼은 교회사를 설교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347로 구분하여 말했는데, 첫째 시기가 하나님 말씀만이 왕 노릇하던 초대교회 시기이며, 둘째 시기는 말씀의 일축기였던 중세 시대였고, 셋째는 말씀이 다시 부흥하여 모든 규가와 교회에서 말씀이 왕 노릇 하였던 종교개혁 시대라고 했다.

8)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39.

4) 성숙 이원론의 극복

종교개혁은 기독교적 삶의 의미에도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 성숙(聖俗)의 이원론적 구분이나 성직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라는 잘못된 가치를 바로잡아 주었다. 루터는 수도원의 맹세에 눈물겹게 감동했다고 하였지만, 후일 '수도원 맹세에 관하여'(De votis monasticis)라는 글에서 수도원적인 삶만이 고상하고 기록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사람이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이것이 직업에 서의 '소명론'(召命論)인데, 그는 모든 직업을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라고 볼으로써 성숙 이원론을 극복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칼빈의 주장은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었다. 성화의 삶은 세속으로부터 격리된 수도원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속화 될 위험이 있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제 한 것이었다. 종교개혁은 교리적 개혁(Reform)뿐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한 영적 부흥(Revival)이었다. 16세기 개혁은 교회와 신자의 삶에 실로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예배 의식이나 제도는 신화를 반영하므로 종교개혁 이후 예배당 양식이 달라졌고, 예배 의식도 달라졌다. '그 개혁'이란 교회의 개혁이었고, 교회적 삶과 신자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5) 사회개혁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화의 갱신뿐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개혁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보다 칼빈의 기여가 컸다. 루터가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였고 기존 질서(정치권력)와 평행적 관계에 있었다면, 칼빈은 거기서 진일보 하였다. 루터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던 칼빈은 하나님 중심주의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신관은 인간관, 사회관

등 신학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칼빈주의자들은 사회를 성숙 이원론에 따라 이분화 하지도 않았고, 사회와 그 제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모든 제도, 조직, 직업, 직위 등 질서를 설정하셨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예속된 수종자(servants)로 표현된다.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근거와 가능성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성숙의 이원론적 구분은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속의 영역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숙 이원론은 영의 분리를 조장할 뿐 아니라, 두 영역에서 각기 다른 행동양식을 갖게 한다. 즉 종교행위를 단순히 주일 예배 및 그와 관련된 행위뿐만 제한하게 하면서, 세속적 영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게 한다. 둘째, 사회나 사회구조는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세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와 사회를 위해 체계적 존재의 사슬로 보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회구조적은 더 이상 하나님이나 세우신 절대불변의 구조가 아니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사회는 타락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짙었다. 사회 현실에 대해 무관심했고, 문화적 소멸에 대해서도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3. 한국교회의 문제

1) 신학과 교회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수적인 '성장'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성장 의의 다른 가치들은 경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진실한 신화와 윤리이다. 신화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터이자 축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학 없는 교회' 혹은 '교회 없는 신학'을 추구하는 양극단에 놓여 있다. 신학 없는 교회란 진실한 신학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러한 교회들은 교회

의 진통이나 교회사를 무시하는데 목회자 개인의 주관에 크게 좌우되어 주관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처럼 교회 성장만 이루어지면 되지 신학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

반대로 '교회 없는 신학'이란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 신학운동으로, 칼 바르트(K. Barth)나 폴 틸리히(P. Tillich)는 신학을 "교회를 위한 학문"으로 이해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 건설의 의지가 없는 신학은 철학화되거나 사변화되기 쉽고 소위 '학문추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런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한다. 종교다원주의도 이런 유형의 신학이다.

2) 지도자들의 윤리 의식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의식 수준이다. 교회의 부패는 바로 성직자들이 부패를 뜻한다. 중세 교회의 부패도 성직자들의 부패 때문이었다. 부패의 중심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물질과 권력, 명예에 자유한 성직자는 상당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존경도 받는다. 신앙적 삶은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지만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장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담하게 살아 가려는 경건한 처신이 요구된다.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최선의 방법은 목회자가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조롱 받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키며 정도를 가도의로운 일에 솔선해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한 생

활을 가르치고 실천하면 교회 내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시대 사치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교회 지도자들이 겸소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는 일이다. 아날카 한다. 교회나 교회 기관에 관여하는 지도자들이 공익을 추구하고 사리(私利)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와는 상상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고자 하는 소박한 의지일 것이다. 그것이 성직자들의 권위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중세교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회는 초기교회의 생 활방식인 '나그네 의식을 상실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즉, 나그네적 공동체에야 할 교회가 '인주 집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교회가 이처럼 역사 현실 속에 안주하려고 할 때 세속 권력과 아첨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적 가치를 무시하게 된다. 나그네 의식은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새겨주신 삶의 방식이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였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민·이동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다 나은 문화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고 믿게 되면 개혁은 불가능해진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자성(自省)하는 일이다. 종교개혁을 16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묻어두지 말자. 테오도 베자가 말했듯이 "교회는 개혁되어야므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상구 형제 고신대학교 교수이자 북종성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고신대학, 호주 신학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과장, 교수부장, 신학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성서신학 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